

학술특집-남북한 역사인식의 문제점과 지향점

통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북한에 대한 지나친 편견을 극복하는 동시에 좀더 객관적으로 남북의 역사인식을 접목하여 그 차이에 대한 근원을 찾고 나아가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I. 문제제기

남북의 역사학과 역사인식이 지금과 같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은 해방후 남북 역사학자의 계열이 다른 것에 연유하며, 그 이후 남북의 정치사회적 조건의 차별적 전개 과정에 따라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남북 역사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 역사학의 성립 배경과 역사학의 시기별 변천 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배경(1950년대 초반까지), 제1기(1950년대 초반-1960년대 중반), 제2기(1960년대 중후반-현재), 제3기(80년대와 90년대)로 구분하여 남북역사 인식의 차별성이 심화되는 과정과 그 전망을 정리하기로 한다.

II. 남북사학자들의 사관의 차이 (1950년대 초반까지)

한국사를 근대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실학사기에 그 맹아적 형태가 보이긴 하나, 역시 개항이후, 특히 식민지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식민지시기에는 한국사연구가 여러 계열에 따라 이루어져서 주목된다. 먼저 일제의 이용사학자들이 식민지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 창출의 일환으로 한국사 연구를 진행한 '식민사학'의 계열이 나타났고, 이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사를 연구해 간 '민족주의사학'이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였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역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을 한국사의 전개에 적용하려 한 '사회경제사학'의 계열이 대두하기도 하였으며, 단편적 사실의 구체적 고증 작업을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생각한 '문헌고증사학'의 계열이 일정한 자리를 점하였다. 해방후 식민사학은 당연히 배척되었으며, 6.25를 전후하여 사회경제사학 계열의 연구자들은 거의 자진 월북하였고, 민족주의 계열의 연구자들 역시 북으로 넘어간 자가 많았다(남북이든 자진 월북이든 간에). 자연히 남한 학계에는 문헌고증사학을 주로 하는 연구자들이 외롭게 대학 강단을 지키며 연구를 진행해 갔던 것이다. 이 시기에 한국사 연구는 남북

분쟁이 전개되는 와중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주의성을 강조한 김일성의 노선이 채택되어, 김일성 중심의 지도체제가 확립되었다는 면에서 남한의 그것과 대조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체제 지향성을 표방했던 북한에 있어서 한국사 연구의 방향은 남한의 그것과 달리 나타났다. 이를 주도한 연구자들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경제사학 계열의 인사들로서, 이들은 사회주의체제로의 발전을 해방하기 위하여 한국사의 체계적 정리를 시도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의 한국사 연구사상 가장 활발한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많은 기념비적 연구성과들이 쌓일 수 있었으나, 그것은 10여년간에 걸친 치

못하고 후일의 논쟁을 기약하는 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만주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유신체제라는 극단적 형태로 점철되어 가자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사 연구의 필요를 찾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 시기 남한의 한국사 연구는, 약간의 예외적 측면은 있었지만, 대체로 구체 실증적 차원의 연구에 머물러 수박에 없었던 유신체제는 군사 교과서를 국정화시킴으로써 체제유지적 한국사인식을 강요하였다.

북한의 경우 국내외적 정치정세의 변화속에서 이전의 주체노선을 '주체사상'으로 체계화하고 결국 이를 유일사상으로 관철시키면서, 한국사인식에서도 큰 전환을 보인다. 이 시기 북한의 한국사인식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른바 삼국 통일에 대한 인식과 근현대사의 분기

점대론을 거쳐 '시대구분' 문제의 일단계 종결을 가능하게 하였다. 「시대구분」이란 사회구성체적 인 시각에서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장구한 시간을 몇개의 공통적 시대로 구분하지 않고 역사를 이해하려 할 때 역사의 큰 흐름을 망각하기 쉬울 것이다. 이는 숲은 보되 나무는 보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남북한 역사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러한 「시대구분」인식의 존재 여부였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IV. 유신체제와 주체사상에 규정된 한국사인식(1960년대 후반-1970년대 후반)
4.19혁명운동과 5.16군사쿠테타라는 상반된 변화과정을 거친 남한 사회는 여전히 '반공'이데올로기를 무기로 한 탄압정국이 지속되어 가는 한편으로, 이에 상반되는 새로운 움직임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한국사 연구에서 사회경제사학적 연구 경향이 이미 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였다. 1967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사 시대구분'에 대한 논쟁이 경제사학회 주최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조그만 결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논쟁은 각양각색의 시대구분의 '기준'들을 제시하는 수준 이상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진보적 연구자들에게 한 학술훈을 본적으로 전 개되어 갔다. 한국사 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이들은 사회구성체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한국사를 체계화시키고 실천적 전망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북한의 경우, 여전히 주체사관에 의한 한국사인식의 틀을 대체적으로 유지하면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5.60년대 북한 학계가 지녔던 토론과 연구의 자세를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미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의 한국사인식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출발하여 70년대의 억압을 견뎌내고 80년대에 들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한다면, 북한의 경우 초기 연구가 보여주었던 건강성이 체제의 틀에 의해 결실된 상태로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90년대는 냉전체제가 해소되고 새로운 국제적 힘의 관계가 수립되어가는 전환기의 시기이다. 이 때 남북의 관계는 어느 한 체제만을 고집하지 말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새로운 체제를 창출함으로써 변하는 세계에 희망

을 주는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한국사인식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마땅하다.

강 봉 룡 (시립대 대학원·국사학)

현재 정치인문학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교(정경대·신문방송)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중대한만큼 그에 부응하는 언론인의 자세가 바로 '정통적'인 자세이다"

현재 이 학회는 총26개 대학 27개 학과에, 제2기 교수, 대학원생 및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중견 언론인 등 268명이 가입하여 언론현상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언론 기관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등 산·학·협동적 노력을 국내외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연례적인 학술 활동의 하나로써 매년

정보사회 이끌 언론의 사도

□ 미니시리즈- 한국 언론학회를 찾아서

현대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그 자체의 규모가 점차 거대해짐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한 세분화와 세부적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언론학회는 지난 59년 한국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교육, 조사분석 및 국내외 관련학과와 학문 교류에 힘쓰고자 우리 언론과 학술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현재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정치언론학 연구회, 이론 및 방법론연구회 등 12개 연구회를 두고 있는 이 학회는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사물의 현상을 수량화하여 통계자료로 분석하는 양적 접근법보다, 비판 커뮤니케이션과 역사연구법 등 문헌연구에 의해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질적 접근, 즉 속이론과도 연결된 '비판적' 관점에 대한 연구를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정치인문학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교(정경대·신문방송)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중대한만큼 그에 부응하는 언론인의 자세가 바로 '정통적'인 자세이다"

현재 이 학회는 총26개 대학 27개 학과에, 제2기 교수, 대학원생 및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중견 언론인 등 268명이 가입하여 언론현상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언론 기관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등 산·학·협동적 노력을 국내외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연례적인 학술 활동의 하나로써 매년

봄·가을(5월·11월)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는 올봄 11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외국언론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및 유관기관, 지원기관과의 학술발표와 같은 공동 학술대회도 갖는다.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로 갖는 언론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부터 '쟁점과 토론'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2차 포럼에서는 '한국언론학의 쟁점과 진로'라는 주제로 언론사와 언론인이 지녀야 할 언론의 방향성과 개선점, 한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어 최근 높아지고 있는 언론인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는 '자정운동'의 기운들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이대신교수는 대외언론에 대해 "지금의 대외언론들은 거의가 진보적인 언론이라 평가해 내리기 어렵지만 '사실보도'라는 언론 제1의 기능보다 선별적 내용을 많이 있게 다루는 잡지적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언론은 대학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을 대변해야만 발전 가능하며, 학내의 사건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옳은 것은 칭찬 하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바람직한 언론이 될 수 있겠지요"라며 대외언론의 기능과 내용성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했다.

현재 본교에서는 한국언론학회에 한영구, 이광재, 한근태, 이정자교수 등 모두 5명의 본교 신임과 교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일형 기자)

문헌에 의한 비판적 관점 연구부각

언론, 정통적 관점 연구부각

언론, 정통적 관점 연구부각

(김일형 기자)

'양극화'가 부를 위협

자연과학에서의 '양극'의 존재는 우주의 균형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양극'의 존재는 분열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음에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체제, 개성, 소유의 양극화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양극화의 경향이 꽤 농후한 상태이다. 남·북한의 두 체제 소유상태의 격차가 민족의 이질화와 사회구성원 사이의 위화감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으면서 예의 양극화가 또다시 부각되어지고 있다.

일방에서는 명절 상여금과 연휴일수에 대한 소박한 기대가 실망으로 무너지고 또, 다른 일방에서는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1~2백만원의 상품 구매를 꿈꾸고 있다.

즉, 생산적 노동자들은 무역적자와 물가 폭동에 의한 경제침체로 예년보다 낮은 상여금과 적은 연휴일수에 한숨 짓는가 하면 외국계 신용카드 회사들은 고가 외채수입 품을 내놓고 상류층을 상대하고 있다.

그것은 추석선물로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고가의 물품을 사는 소비자의 존재를 알게 한다. 그러한 소비자의 존재 이유로 국내 개별 대기업들도 사치성 소비재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어 과소비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무역적자와 물가폭등으로 경제성장 곡선이 하향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추

를 보내는 일면이 소유의 양극화 현상에 일조할 것이 자명하다.

'서로의 삶을 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양극론을 펴는 것은 극단적 사고'라는 논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를 낙관적으로 억지로 바라보는 몽상론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 현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계를 느끼는 아나, 노력조차도 거부하는 환경이 주어지는 삶이 있으며 쉽게 골프와 투기를 일삼을 수 있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삶이 있다.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 사회는 늘 모순을 안으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가지지 못한 민중과 노동자들은 한때는 좌절속에 피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물론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감속에 능동적 삶을 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극도의 좌절을 맞은 민중들은 피동적 살만을 영위하지는 않는다. 불평등한 부의 분배가 부를 양극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석상여금과 연휴일수의 감소, 임금체불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경제체제의 책임과 경제부고의 희생이 바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형상이고 또한 지금의 경제위기가 내수경기의 활성화때문이라고 수없이 말하던 서도 당국과 재벌들은 과소비를 부추기고 일삼는 것이 전반적 추세이니 결국 한가위

경희인의 理想과 思考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학주보는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말해봅시다(200지 원고지 4-6매)
□말해봅시다: 교수·학생·직원 등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의 크고작은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 합니다.

□교수신문(200지 원고지 20-40매)
전임이상 교원이 자신의 학술적 성과를 발표하는 난입니다.

□독자신문(200지 원고지 20-40매)
학생의 연구성과나 교수·직원·학생이 학내의 문제제기에 대한 심층분석 혹은 시사적인 주의주장을 펴는 난입니다.

□독자신문
경희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난으로 자신의 문학적 소양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시:(매주제출) ·수필:(200지 원고지 10-15매)
·비평:(200지 원고지 20매 내외) ·소설:(200지 원고지 80매 내외) 4·5회 연재분

□사건·사고 제보 및 정보 서비스
학내외적으로 한 번쯤 대학주보가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사안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정보를 최대한 서비스해 드립니다.(자료의 성격상 반출이 금지되거나 열람만 가능한 것도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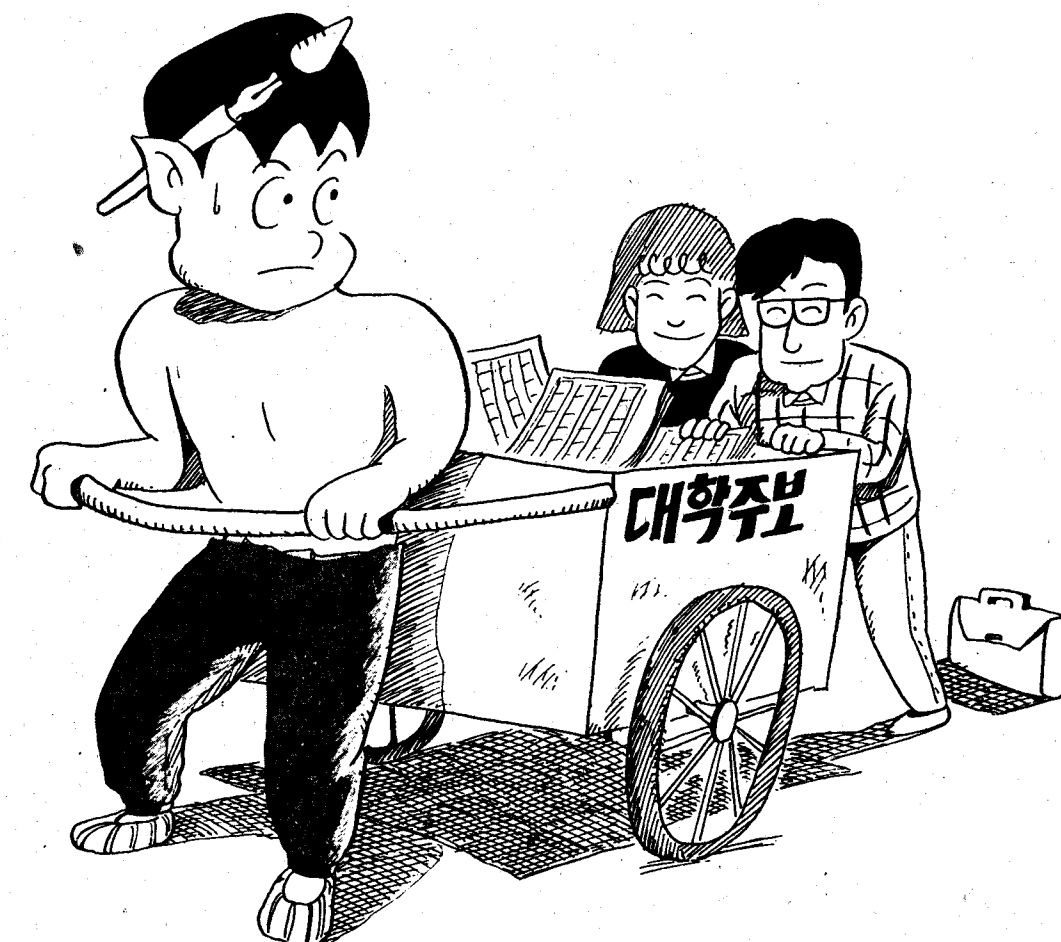
※모든 투고는 본사편집실로 직접 제출해 주시고, 직접 찾아오실 수 없을 경우 전화나 Fax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주·야간) 963-5849, 961-0093~5
수원캠퍼스(주간) (02)745-5702 (교환:2055-6,2860)

(0331)280-2055-6, 2860
Fax 서울캠퍼스 963-5849 수원캠퍼스(0331)280-2238

대 학 주 보 사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학주보는 기자과 독자가 함께 만듭니다!



대 학 주 보 사